

“혁신도시 고교 공동지원제는 시기상조”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전남과학고·외고 정원 늘려 ‘이주학생 특별전형’

마이스터고 신설 입주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장만채<사진> 전남도교육감은 12일 광주와 인근 전남 시·군과의 고교 공동지원제(공동학군제)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전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공동학군 대신 특목고인 전남과학고와 전남외국어고의 정원을 늘려 혁신도시 이주기관의 교육 욕구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나주시가 ‘(광주와의) 공동학군제를 시행하게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논란이 일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교육감은 “진학은 ‘강한 데’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며 “혁신도시가 안정기에 들어섰다면 광주의 높은 교육수준과 열의에 대응해 승산이 있지만, 지금은 시작 단계로 제도·시스템·인식 등 제반 여건이 공동학군을 하기엔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이 (광주) 빠져나가면 부모가 혁신도시에 정주할 이유도 없어진다”며 “일부 지역에서 왜 그런 공동학군제 요구하는지 의아스럽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혁신도시의 성공 요건은 교육”이라며 “전남에 이주해 온 우수한 인재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를 신설해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전남과학고와 전남외국어고의 정원을 늘리고 ‘혁신도시 이주학생

특별전형’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 교육감은 “화순·영암·장성 등 혁신도시 인근 20분 이내 거리에 있는 특성화고교를 적절하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제고 신설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아 현재는 과학고나 외고 둘 중 하나를 이전하던지, 학교(자사고)를 증설해 혁신도시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선상 무지개학교에 이은 시베리아 횡단 독서열차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됐고, 사전 답사도 끝난 상태”라며 “독서열차 노선의 북한 경우 여부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경우에 대해 “통일부와 긍정적 조율작업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외교적 문제와 맞닿아 있어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18기념재단

신임 이사장 차명석씨

제12대 5·18 기념재단 이사장에 차명석(62·사진) (사)시민문화회의 이사장이 결정됐다.

5·18 기념재단 이사회는 12일 이사회에서 5·18 기념재단 이사장 선출(안)을 상정, 이사회 추천을 받은 차씨를 5·18 기념재단 제12대 이사장으로 결정했다.

그는 이날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이사회의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연락이 온다면 이사장직을 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 며칠 전 지역 원로 선배들로부터 이사장직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오히려 5·18 기념재단 위상을 추락시킬 것 같아 확답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들 전 5·18 기념재단이 안팎으로 어렵다는 얘길 듣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18 기념재단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업무 파악이 우선이다. 이사회는 물론 직원들의 조언을 꼼꼼히 챙겨 들을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직원 고용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5일부터 3년간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5·18재단 직원 침묵시위

5·18 기념재단 직원들이 새해 첫 이사회가 열린 12일 오후 재단 내에서 계약직 직원에 대한 하고 철회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재단 직원들은 지난해말 계약직 직원 2명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압수수색... 과실여부 수사

경찰, 국과수 정밀분석 의뢰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원인과 관련, 경찰은 불이 시작된 4분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12일 오후 대봉그린아파트에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운전한

뒤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또 화재 당일 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1분 30분가량 오토바이를 살핀 장면도 나온다.

불은 A씨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시작됐다.

이에 따라 A씨가 오토바이 관리를 소홀히 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오토바이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며 “두 달

동안 탔는데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씨는 화재 당시 부상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본부는 오토바이를 통째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분석 결과는 1주일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도 그중 하나”라며 “방화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녘 17:41
달돋이 00:11
달질 11:55

포근한 ‘한낮’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3/9	보성	맑음	-6/8
목포	맑음	-3/7	순천	맑음	-2/10
여수	맑음	1/8	영광	맑음	-5/7
나주	맑음	-5/8	진도	맑음	-2/9
완도	맑음	-1/9	전주	맑음	-4/8
구례	맑음	-8/8	군산	맑음	-4/5
강진	맑음	-5/9	남원	맑음	-6/7
해남	맑음	-6/9	홍산도	맑음	1/5
장성	맑음	-6/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0.5~1.0
면바다(서)	북동~동 0.5~1.5	북동~동 0.5~1.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6:54 19:08	12:05 00:00
여수	01:39 13:58	07:42 20:13

◇ 주간 날씨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1/10	-1/8	-1/6	-1/4	-2/5	-1/6	0/6



◇ 생활지수

	25
	50
	90

오늘 낮 최고 10도...광주·전남 주중 포근

광주와 전남지역에 주중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 광주·전남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12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7도~10도 분포로 이는 평년보다 3~4도 가량 높은 것이다.

14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7도~12도로 전남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광주·전남은 당분간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 오는 16일 비가 시작돼 주말까지 이어지겠다. 18일 휴일은 다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아침과 낮 기온이 15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며 “비 소식이 예보된 16일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정부, 건물 외벽 불연재 사용 의무화 추진

대형화재 인명피해 감소 위해

국민안전처는 12일 화재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미리 배포한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후속 대책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는 현행법상 고층건물과 상업지역 내 다중이용업소·공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

재 사용 의무 규정이 없어 이번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엔 화재가 났던 건물처럼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높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외부 마감재로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또 두 건축물이 인접해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636

결과

믿음소망

알려주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전화걸고 사용중인 상호를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기분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버링 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를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보이스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1위의 음성 인식 기술회사인 뉴앙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경선간담이 전국수요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주)콜피어의 총대사로 활동합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생,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대 5도 58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 이마트 앞

275-7766